

# 불교로 찾는 생태계 위기와 대안



**불교와 생태학**  
세계종교연구원 역음  
불교문화연구원 옮김  
동국대학교 출판부  
3만원

올 겨울 호남지방의 기록적인 폭설과 지난해 미국과 파키스탄을 잇달아 강타한 허리케인과 강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최근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생태학적 문제들을 풀어보는 '불교생태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

## 동국대 출판부, 불교생태학 총서 10권중 두번째 '남방불교와 생태학' '환경친화적 운동' 등 눈길

윤길·동국대 대학원장)이 개교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생태학총서' 10권을 발행한다. 지난 2004년, '불교생태학총서' 시리즈 첫 번째 책인 김종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연구교수)의 <불교생태학>을 통해 불교생태학의 학문적 기반과 총론을 소개했던 불교문화연구원은 이번에 두 번째 책 <불교와 생태학>을 출간했다.

이 책은 미국 하버드대 신학대학 부설 세계종교연구원(Center for the Study of World Religions)에서 간행한 '세계종교와 생태학 총서(Religions of the World and Ecology Series)' 중 <불교와 생태학(Buddhism and Ecology)>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세계종교와 생태학 총서>는 1996년 5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세계종교연구원(총장 서윤길)이 '종교와 생태학'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

에서 발표된 논문을 엮은 것으로,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불교와 생태학'이었다. 서윤길 원장은 <불교와 생태학>은 현재까지 출간된 불교생태학의 연구 성과 중 가장 방대하고 권위 있는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불교생태학총서' 발간을 계기로 국내에서 아직 미개척 분야인 불교생태학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책에는 '불교와 생태학' 포럼에서 '남방불교와 생태학' '대승불교와 생태학' '불교와 동물들' '불교생태학적 세계관의 응용' '불교와 생태학에서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등을 주제로 발표된 18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특히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미국 웨스트대 총장)의 '불교와 생태학-집단지 문화 인식'은 불교생태학 연구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있다.

1부 '남방불교와 생태학'은 현대 태국의 불교생태학 연구 성과와 녹색사회 추진, 사원 공동체의 잠재적 공헌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다루고 있다. 2부 '대승불교와 생태학'은 화엄적 관점에서 자연을 조망한 '자연의 보망(寶網)'에 대한 개념을, 3부 '불교와 동물들'에서는 <본생담>에 나타나는 동물 해방을, 4부 '선불교: 문제점들과 전망'에서는 선(禪)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불교: 생태학적 공동체 만들기'에 소개된 북미의 불교생태적 운동과 진마운틴센터(Zen Mountain Center)의 환경친화적 운동은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책 말미에 담은 '불교와 생태학 문헌목록'에서는 불교생태학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와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불교문화연구원은 앞으로 <생태미학·생태문학> <초기경전 속의 불교생태학>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 <불교사상의 생태적 이해> <현대문명 비판과 불교생태학> <불교와 심층생태학>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ky@buddhania.com



기원정사에서 예불을 올리는 한국 불자를 그린 '염원·기원정사에서', 이호신 작.

## 살아 꿈틀거리는

### 인도의 풍광

"불교의 시조(始祖) 붓다의 생애를 흠모하며 순례에 동참했던 일은 내 삶의 축복이었다."

2003년 이호신 작가는 인도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들러 본 인도를 화첩에 꼼꼼히 옮겼다. 돌아와서는 그 당시의 감회를 글로 썼다.

최근에 펴낸 <나는 인도를 보았는가>는 두 차례에 걸쳐 인도 전역을 답사한 지인이 인도 풍경의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일종의 화첩기행문이다.

수많은 유적들 가운데 지은이의 발길을 가장 오래 붙잡아 둔 곳은 쿠시나가르의 열반당이였다. 지은이는 열반당에 들어서니 "열반에 들기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현상은 변하니 항상 계엄을 없이 정진하라는 말을 남긴 부처님의 그윽한 음성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고백한다. 이렇듯 이 책에 소개된 유적지들은 단순한 관광객의 피상적인 구경거리로만 머물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는 가장 훌륭한 재미는 바로 지은이의 그림에 있다. 인도의 세속과 풍물, 자연경관들이 한자 화제(畫題)의 대상으로 종이위에 박제되어 아니라고 섬세한 필력으로 살아 꿈틀거린다. 그래서 책을 읽다보면 마치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호신 작가는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 결국 내가 만나고 온 것은 수많은 유적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다"고 감회를 털어냈다. 김주영 기자

**나는 인도를 보았는가**  
글·그림 이호신  
종이거울 | 1만5천원

도서구입은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 읽을거리 풍성... 디자인도 새롭네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문단의 현실을 짚어볼 수 있는 장구인 문예지. 오늘날 상당수의 문예지들이 판매부진과 대중성 부족으로 폐간되고 있는 가운데, 제간 불교문예지 <불교문예>와 <유심>이 다채로운 읽을거리와 새로운 편집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가 펴내는 <불교문예>(불교문예출판부, 1만원은 통권 31호인 2005년 겨울호부터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표지디자인을 바꾸고, '쟁점과 전망' '기획탐구' 등의 기획물을 강화했다.

이번 호 '쟁점과 전망'에서는 수경 스님의 '수행과 생명평화 운동은 돌이 아니다'를, '기획특집'에서는 지난해 11월 열린 '현대불교문학상·제간 <불교문예> 10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을 실었다. '한국불교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준섭 교수(강원대 국어교육과)의 '반복, 생성, 차이: 최근 학구문학에 나타난 불교적 상상력의 맞가지'와 장영우 교수(동국대 문예창작과)의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작의 문학사적 의의'가 발표됐다.

또한 최동호 시인의 신작시와 공광규 시인의 해설 '최동호의 운회적 세계관 구현과 선적 감각의 미적 성취 방법', 강진욱 교수(화여대 국문과)의 기획탐구 '바리데기의 구약여행'도 눈에 띈다.

현대불교문인협회 기획위원장 로담 스님은 권두언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10년의 역사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하는 불교문예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교

### 불교 문예지 '불교문예' '유심' 겨울호



문예> 편집장 김연자 시인은 "짧은 필진을 영입하고 재능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해 생활 속에 불교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문예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독자와 문인이 한자리에 서 만날 수 있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존의 사찰 위주 배포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서점을 통한 판매망을 확보해 좀 더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교문예>는 '청소년불교문학상'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불교문학의 미래를 짚어주고 갈 초·중·고교생들의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시와 시조, 소설, 수필, 희곡 등의 분야를 모집한다. 응모작은 1월 20일까지 <불교문예> 편집실로 보내면 된다. 02-923-3112

2005년 겨울호로 통권 23호를 맞는 제간 <유심>(만해사상 실천 연회, 7천원)의 겨울호에서는 김구동 시인의 '당부', 신경림 시인의 '아, 마달라 마리아조차!', 황동규 시인의 '해방동아!' 등 유명작가들의 작품이 담긴 '유심시단', 서벌 시인에 대한 추도시와 대표작, 연보 등을 만날 수 있는 '서벌 추모특집'이 눈길을 끈다. 이번 호부터 연재되는 특별기획 '53선지식을 찾아서'는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과 박세일 교수(서울대),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를 만나 수행과 경제, 정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편, <유심>은 역량 있는 신인 발굴을 위한 '유심신인문학상' 공모를 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시와 시조, 문학평론 분야로 나뉜다. 02-730-2500

여수령 기자

## 재미있고 쉽게 읽는 부처님 법문 100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권력이나 부(富)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불교 수행자들은 열반(涅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꼽는다. 열반은 모든 고통이 소멸된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복과 대자유, 해탈을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르침이 주옥같은 담론이었던 것은 동의하지만 실천하거나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홍사성 불교방송 상무가 최근 펴낸 <마음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을 읽다보면 이런 근심이 기우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책은 <중야함> 222경과 <장야함> 30경에서 선별해 가려 뽑은 일화중심의 부처님 유성법문 1백가지를 모아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야함>은 인연 비유와 함께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언행(言行)을 기록해 초심자들에게도 재미있고 쉽게 읽히는 내용들이다.

12인연(因緣)의 가르침을 실한 <중야함> 역시 부처님의 열반과 바라본의 사된 견해를 타파하는 내용 등을 실고 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고할 만한 교훈적인 내용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 책이 불자들에게 유익하게 다가오는 것은 불교 언론에서 30여년간 일한 지은이의 촘촘

**마음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

홍사성 지음 | 장승 | 1만1천8백원



여수령 기자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이끌려가지 않고 이끌어가는 삶,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 구선 지음  
312쪽 / 값 18,000원

### 見性を 넘어成佛로 가는 법

스스로의 인과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는 자들의 필독서 - 자재정사 정오스님  
나는 어디에서 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 동야대학 이재기 교수  
극단적 선택에서 벗어나고, 자기 업식을 제도하고, 인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김동형 행정학 박사

**수련회 안내**

- 서울 수련회(산본): 매달 둘째 주 토요일 ~ 수요일
- 연화사 수련회: 매달 넷째 주 주중

수련회 장소와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http://www.kwan.or.kr/>) 또는 전화(054-682-7770)로 문의 바랍니다.

※ 위의 수행을 통해 면적정결환과 청신명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 여덟진로의 수행체계와 선정법과의 관계 ●

선정	일선정 一禪定	이선정 二禪定	삼선정 三禪定	사선정 四禪定
여덟진로	중심자리를 인식하고 편안함을 세운다	중심분리를 통해 중심을 표면과 이면으로 나눈다	표면은 철벽, 이면은 텅 비워진 상태	철벽이 허물어져서 텅 비워졌다
근본의 일	인간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대한다	표면의 움직임과 움직임이 없음에 관여되지 않는다	이면의 비움에 의지를 집중한다	표면의 공과 이면의 공이 합일되어 무위하다
면모의 일	인식의 주제와 인식의 대상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색의식의 발현)	의식의 일치를 이룬다 (수·의식의 발현)	존재목적 설정하고 이치를 타파하며 자기사상을 갖춘다 (상·의식의 발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다 (행·의식의 발현)
각성의 일	표면적 유희와 색의식의 발현을 원할하게 이룰 수 있는 각성	미세적 유희와 미세망념을 제도할 수 있는 각성	둔탁한 미세적 유희가	일시적 무위각
자기제도	장부순화 (음수연을 통한 장부순화, 중심의 편안함을 통한 장부순화)	취추순화 (취추법에 내장된 염식의 순화)	감비배 순화 (감비배에 내장된 염식의 순화)	위장 소장 대장의 순화, 황정의 형성과 꼬리배순화, 제약
교류성의 확보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계에 충실한다	인과적 관계의 교류를 행한다	교류적 관계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초화적 관계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존재목적의 실현	있는 그대로 본다	혼의식을 일깨우고 외부의식과 교류한다	색계뿐만이 아니라 무색계에서도 자기를 실현한다	조화의 성취
인식의 틀 깨기	경계를 대하는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공고히 한다 (근본의 인식에 충실한다)	중국을 자극해서 선천기를 표출시키고 그로써 중심이 철벽이 되도록 한다	자성의 공을 증득한다	오기의 조화와 무상성체의 증득

※ 이화 공무번치정(空無邊定), 식무번치정(識無邊定), 무소유치정(無所有定), 비삼비비상치정(非想非非想定), 상수월정(受受定)에 대해서는 이름다른 세상관 수련회(<http://www.kwan.or.kr/>)를 참조하십시오.

##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서 갈 줄 아는 것이 깨달이고 때가 되어서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른다는 것은 인간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농 이영문씨가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성대학교 농대 교수)